

건설 CEO - ‘미래 비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 갖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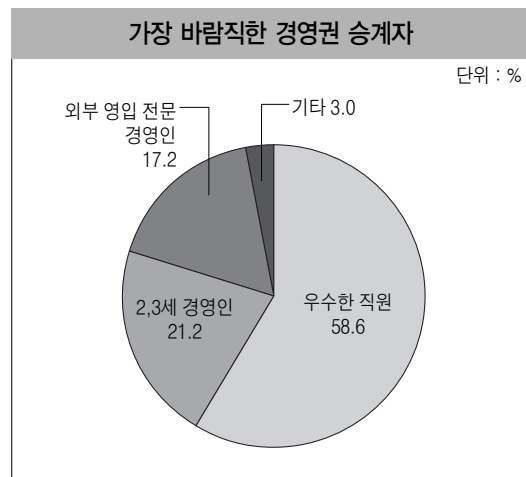
- ‘우수한 직원’의 경영권 승계 바람직 59%, 흑자 시현 자랑스러워 -

박 용 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spark@cerik.re.kr

일 반적으로 CEO의 자질로 ① 기업가 정신/도전 정신/열정, ② 창의성/꿈/아이디어, ③ 전문 지식/핵심 역량/나만의 무기, ④ 바른 가치관/돈의 의미, ⑤ 다양성/남의 관점 이해, ⑥ 성실성/도덕성/진실성/신용, ⑦ Communication Skill, ⑧ 글로벌 역량(언어/다양성 존중), ⑨ 예의범절, ⑩ 추진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건설 최고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우수 직원’에게 경영권 물려주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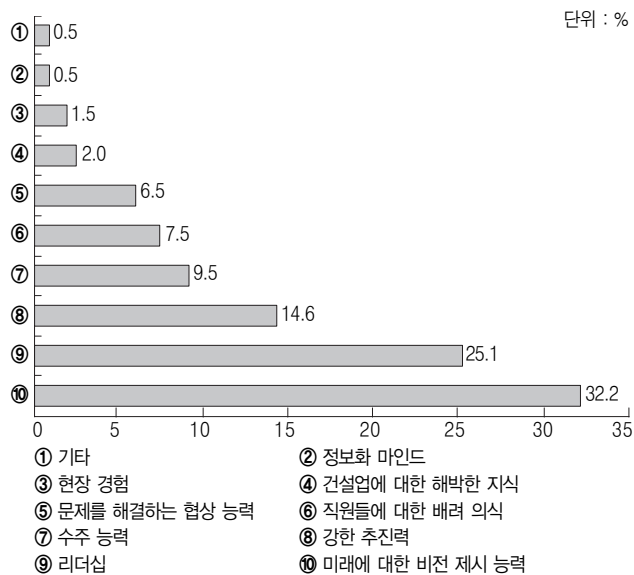
건설 최고 경영자들은 건설 CEO의 자질에 대해 32.2%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리더십’ (25.1%),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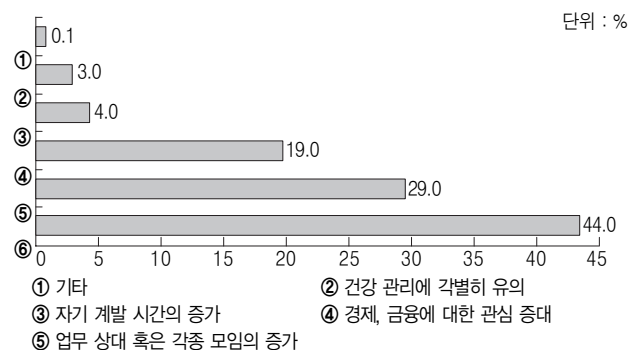
한 업무 추진력’ (14.6%), ‘수주 능력’ (9.5%), ‘직원들에 대한 배려 의식’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경영자를 누구로 선정하느냐의 문제는 기업 경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최고 경영자는 기업을 흥하게 할 수도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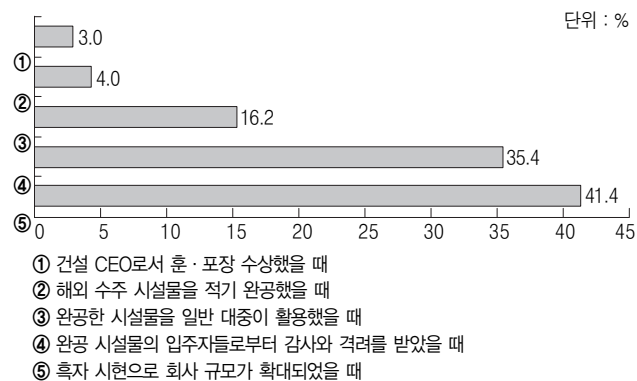
건설 최고 경영자의 자질(복수 응답)



건설 최고 경영자 취임 이후 라이프 스타일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건설 최고 경영자로서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



최고 경영자들은 일선에서 물러날 경우 누가 경영권을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수한 직원' (58.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2, 3세 경영인' (21.2%), '외부 영입 전문 경영인' (17.2%)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과 실현' 때 자긍심 최고

건설 최고 경영자 취임 이후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44.0%가 '업무 상대 혹은 각종 모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경제·금융에 대한 관심 증대' (29.0%), '업무량 및 업무 시간 증대' (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최고 경영자가 되면서 기업 경영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량도 증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 최고 경영자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일에 대한 성과가 실현되었을 때라고 응답했다. 일반적인 CEO와 마찬가지로 '흑자 시현으로 회사 규모가 확대되었을 때'가 4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완공 시설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감사와 격려를 받았을 때' (35.4%), '완공한 시설물을 일반 대중이 활용했을 때'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건설 최고 경영자도 역시 '건설인'이라는 자긍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